

황영애의 조각은 흡사 운치 있는 풍경화를 보는 것 같다. 파도에 정지 없이 흘러온 어떤 사연이 담겨있을 법한 유리병이 등장하는가 하면, 얼마 안 있어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과 시루떡에 깨인 팔처럼 크고 작은 돌들이 춤추며 박힌 황무지가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앙증맞은 새들이 가지 위에 앉아 있는 정겨운 모습이나 탐스러운 열매와 소원을 간구하는 손 등도 발견된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마주쳤을 장면들이 스틸사진처럼 흘러 지나간다.

근작을 보면 예전의 표현적인 원색조의 칼라와는 달리 회색빛이나 은빛과 같은 무채색으로 갈무리된 빈 화를 발견할 수 있다. 작품의 표면은 무채색이 주는 무덤덤한 담백함을 전달해주고 있다. 자잘한 묘사는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간추린 것 같은 부조작품이다. 비슷한 모습이라든가 그의 작품은 사실주의자 들처럼 현실의 객관묘사에 치중한 것도 아니고 전원 의 화가들처럼 목가적인 정경모습에 주안점을 둔 것도 아니다. 사생이나 풍경모습이 관심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주 관심사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의 작품이 상징성을 띤 것은 작품에 어떤 '의미의 지층'에 잇대어져 있다는 심층을 반영해준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경화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이런 사실은 야콥 루이스달(Jacob Ruidael)과 얀 반 호연(Jan van Goyen)과 같은 미술가들이 애용해온 '풍경의 메타포'가 오늘날에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 영적 삶을 말하는 데에 매우 긴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것은 그의 작품에 고르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도착> 연작으로 제작된 몇 점의 <면> 곳에서 온 이야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맨 먼저, <면> 곳에서 온 이야기 >은 흑백의 구상된 이미지로 되어 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고 그 아래로는 진뱃대 하나가 처량하게 서 있다.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곳은 일기 속에서도 곳 곳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의연한 존재이다. 마치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다음으로 <면> 곳에서 온 이야기 >는 파도에 실려온 낙엽에 관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파도의 드넓음을 수직 구도 속에 담아냈고 화면에는 연실 파도가 넘실거린다. 그런 파도에 실려 조그만 유리병 하나가 떠내러 오고 있다. 그 병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니라 파란만장 한 사연을 간직한 낙엽이다. 낙엽이란 가을의 정취를 알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황금기를 마친 쓸쓸한 노후를 암시하기도 한다. 작가는 어떤 의미로 낙엽을 기용했을까? 아마도 산진수진을 다 겪고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른가 직전을 형용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봄의 설렘도 좋고 여름의 활력과 생동감도 좋지만, 가을의 낙엽에서 볼 수 있는 깊은 내면의 성찰은 상륙한 영혼을 약속해준다.

황영애, 영혼의 계절을 말하다

6 서성탁(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황영애는 작품 속에 함축성을 띤 상징물을 통해 인간의 영적 삶을 조명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상처의 에기라기보다는 생활에서 느끼 자신의 에기를 다룬 것이다. 어떤 미시여구 없이 진솔하게 자아를 유머에 대면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황영애 서울대학교 조소과 및 성신여대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에베르랑, 이토후랑, 인사켈라리 등에서 지금까지 11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현대공간화,한국조각가협회, 서울조각회 회원으로 있다.



면 곳에서 온 이야기 1, Painted on F.R.P. 250x100x12 cm

